



1. 독자가 (가),(나)와 같은 시를 통해 시인과 의 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점)

- ①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가 누구인지 살펴가며 읽는다.
- ②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한다.
- ③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가며 읽는다.
- ④ 시에 드러난 정서를 파악한다.
- ⑤ 시인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잘 활용한다.

2.다음 보기에서 (가),(나)의 공통점끼리 연결된 것은?(3점)

- 보 기-----
- ㉠ - 시각적 심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 ㉡ -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그리움'을 노래했다.
  - ㉢ - 대조를 통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 - 주제행이 4행으로 지은이는 '정지용'이다.
  - ㉤ -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로, 시행이 간결하다.
  - ㉥ - 시적 화자와 규칙적인 운율이 겹으로 드러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3. (다)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인생관이 직접 드러난다.
- ② 글쓴이가 상상으로 꾸며 낸 허구의 세계
- ③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일정한 형식
- ④ 등장 인물은 글쓴이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
- ⑤ 산문 문학이다.

4. (가)-(마)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 
- \*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주는 즐거움
  - \* 스스로 이야기의 전승자가 되어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 각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 자연이 주는 봄의 아름다움
- ② (나)- 호수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갖자.
- ③ (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 ④ (라)- 부자가 되는 방법
- ⑤ (마)-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 가치 없는 존재
- ② ㉡- 호수에 비친 내 얼굴이 보기 싫어서
- ③ ㉢- 거스름돈을 주게 되는 사태
- ④ ㉣- 위그든 씨가 물려준 순진함
- ⑤ ㉥- 강아지똥에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소재

7. 각 글의 주제로 볼 때 매사에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독선적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8. 다음은 (라)와 같은 글의 특성이다. (라)에 나타나지 않은 이 글의 특성은?(3점)

- ① 우연적인 사건      ② 행복한 결말
- ③ 비현실적인 내용    ④ 막연한 배경
- ⑤ 평범한 인물

< 서술형 1 >

(가)에서 1,2행을 참고하여 (                      )에 맞는 시구를 쓰시오.(6점)

< 서술형 2 >

(다)의 밑줄 친 '여섯 개의 버찌씨' 와 같은 의미를 지닌 소재를 (다)에서 찾아 쓰시오.(6점)

< 서술형 3 >

(라)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찾아 1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쓰시오.(6점)

-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 서술형 4 >

(마)에서 밑줄 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가 무엇인지 다음 조건에 맞게 쓰시오.(5점)

조건: ~이(가) ~을(를) 위해 ~이(가) 되는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각9-12, 서5-7)

(가) 주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나와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물쇠가 그대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간 속에 갇힌 아들은 빠져 나올 도리가 없었다. 아들 도둑은 할 수 없이 손뼉으로 공간 문을 박박 긁으며 쥐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갔던 주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공간 속에 쥐가 든 게 틀림없다. 가만두었다가는 물건을 망칠 터이니 쫓아 버려야겠구나.’

주인이 자물쇠를 열고 공간에 막 들어가려 할 때였다. 이 때를 기다렸던 아들은 잼싸게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주인이 놀라 소리치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 함께 도둑을 쫓았다. 다급해진 아들은 연못을 끼고 달리다가 연못 속에 커다란 돌을 던졌다. 그러자 쫓아오던 사람들은 도둑이 연못 속으로 뛰어든 줄 알고 모두 연못을 에워싸고 도둑을 찾았다. 그 틈에 아들은 그 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원망했다.

“새나 짐승도 제 새끼를 돌볼 줄 하는데,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비 도둑이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세상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도둑이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한계(限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스스로 터득한 지혜는 그렇지 않아서 그 응용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여 막막하게 되면 도리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그의 어진 마음도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나)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도 값어치만큼의 양은 당연히 준다. 그러나 덩으로 콩나물이 더 없치지 않을 때 아낙네들은 금방 섭섭한 눈치를 한다. 파는 이가 두꺼비 같은 손잔등을 짹 펴서 서너 개라도 더 올려놓아야 아낙네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흐뭇한 미소로 돌아서 간다. 그 덩 역시 국물과 같은 끈끈한 인정의 나뭇잎이라.

그런데 요즘은 우리네 식탁엔 점차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걸어가면서 아침을 먹고, 차에 흔들리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인가. 아니면 개척 시대 미국 이주민의 생활(生活)이 부러워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서인가. 즉석 요리, 즉석 식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내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생선은 굵고, 닭고기는 튀겨야 맛이 있다고 성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나는 그 반대 입장에 서서 국물이 있는 것으로 입맛을 채기려 하니, 아내는 늘 지혜롭게 식탁을 꾸려 갈 수밖에 없다.

(다) 목적지(目的地)에 도착한 후, 동생을 출발 그날로 데려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언니인 내가 저를 따라온 것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는지 재잘거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따라 동생은 다시 제 동무들 곁으로 갔습니다. 혼자 앉아 도시락 보따리를 챙겨 싸는 내 눈에선 뿌연 안개가 서려 왔습니다.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난 오늘 학부모인데 눈물 따위를 보이다니!’ 나는 누가 볼세라 손으로 얼른 눈물을 닦아 냈습니다.

(라) 그 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건기가 서툰 나는 평소보다 일찍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빗물에 미끄러져 다칠세라 그 날도 나를 업고 통학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가 주셨다. 그 날은 어머니 등이 웬지 더 커 보이고 편안했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또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목을 잡고 어머니가 비에 맞으실까 봐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곤 하였다. 그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앞이 안 보인다 하시며 자꾸만 우산을 뒤로 젖히라고 하셨다. 덕분에 나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지만, 어느새 어머니의 얼굴엔 빗물이 흘러 턱 밑까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댔다. 그리고 왜 이런 비를 내려 우리 엄마를 더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하느님을 원망(怨望)도 해 보았다.

9. (가)-(라)를 읽는 즐거움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압축된 뜻을 헤아려 가며 읽을 수 있다.
- ②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며 읽는다.
- ③ 이야기 속 세상을 나름대로 상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④ 삶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⑤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가며 읽는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다.

< 서술형 5 >

(가)에서 아버지 도둑이 아들 도둑에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  
(5점)

- 뒷면에 계속됩니다.

10. (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3점)

- ① 조선시대 강희맹이 아들 도득을 훈계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 ②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 한다.
- ③ 독자를 설득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 ④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작가의 개성대로 쓸 수 있다.
- 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한글문학의 한 양식이다.

11. (다)의 밑줄 친 말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린 나이에 학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뿌듯함
- ② 언니의 마음도 몰라주는 동생에 대한 야속함
- ③ 자신의 소풍에 가지 못한 아쉬움과 속상함
- ④ 어머니가 동행할 수 없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한 서글픔
- ⑤ 친구도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

12. (가)-(라)의 공통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글이다.
- ②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쓴 개성적인 글이다.
- ③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 ④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
- ⑤ 글 속의 '나'는 지은이 자신이다.

< 서술형 6 >

(나)에서 밑줄 친 '끈끈한 인정의 나눔' 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 두 개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5점)

< 서술형 7 >

(라)에서 지은이의 어머니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객13-16)

(가) 아저씨께

아저씨, 저는 현재 개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인숙입니다. 저는 별로 말이 없고, 또 모든 일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운동도 잘 못 하고 공부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한심한 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제가 한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지요? 더구나 그 남학생은 공부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합니다.

저는 등교하는 길에 가끔씩 그 남학생을 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마구 뚱니다. 점점 더 그 남학생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남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저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넌 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네가 감히 그 남학생을 좋아해? 웃기지 마.’

이렇게 제 자신을 나무라고, 또 그 남학생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애써 보기도 하지만, 그 남학생에 대한 제 감정이 쉽게 정리되질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야단을 맞게 되면 그 애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내가 과연 그 남학생을 좋아할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그러면서 점차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나다운’이었다. 아무리 그들을 의식하고 흉내낸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나다. 나는 어떻게 해도 그들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나다운 것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당시에 내가 맡았던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신입 사원 시절, 나는 어린이동요 대회 프로그램과 고향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나의 그 촌스러움, 즉 소박함을 높이 사서 나를 프로그램 진행자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 것이다. 모자란 부분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촌스러움이 순수함으로 비칠 수 있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친근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이다. 내가 나를 제대로 봐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제대로 봐 줄 리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다) “엄마! 나 하는 것 보았어요?”

현이는 나를 보자마자 그것부터 물었다. 이럴 때, 보았다고 해야 할지 못 보았다고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응, 현이가 어느 쪽에 앉아 있었지?”

나는 대답 대신 이렇게 물었다. 혹시 못 보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눈치를 살폈는데, 현이는 의외로 밝은 얼굴을 하며,

“둘째 줄 끝 쪽에 앉아 있었어요.”

하더니,

“엄마, 그럼 나 못 보았지? 아유, 난 내 뒤에 있던 참새가 앞으로 나가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모자가 벗겨져서, 그것을 엄마가 보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금방 집어 썼는데, 엄마 못 봤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현이의 이 말에 또 한 번 마음 속으로 놀랐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비록 눈에 잘 안 띄는 풀잎 역을 하였지만, 현이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엄마가 자기를 꼭 보아 주리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연기를 하였고, 오히려 자기의 실수를 엄마가 보았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다.

결국, 현이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보지 못한 데 대하여 실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3. (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이다.
- ②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 ③ 문서 작성기를 이용할 때도 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다.
- ④ 독자가 정해져 있으며 대상에 따라 예절과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문학적인 글로 친교나 정서표현의 목적이 강한 글이다.

14. (가)에 대한 답장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처 받지 말고 빨리 포기해.
- ②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 ③ 네게 맞는 여학생을 한 번 찾아 봐.
- ④ 자신감을 가지고 너의 장점을 찾아 봐.
- ⑤ 지금은 공부에만 열중해야 할 시기야.

15. (나)의 밑줄 친 말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개성 ② 가치관 ③ 신념 ④ 이미지 ⑤ 주관

16.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놀라움 ② 부끄러움 ③ 대견함
- ④ 미안함 ⑤ 안타까움

17. 다음 중 밑줄 친 말들과 종류가 다른 것은? (3점)

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분명한 방법은 그 즈음에 떠도는 말, 즉 유행어를 알아보는 것이다. 유행어가 그 때의 가장 민감한 문젯거리들을 짚어 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1997년 올 한 해에 가장 유행한 말을 꼽으라면 아마도 ‘명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회사에 ‘명예 퇴직’ 제도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제 는 아예 하나의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발새 안녕 하십니까?”라는 말도 회사의 감원 바람으로 인해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살 빼, 방 빼, 책상 빼’, 이른바 ‘3빼’ 역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유행어였다.

방송이 부추긴 유행어 가운데 ‘공주병’은 단연 압권이다. 제작년 유행하기 시작한 이래 오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이 고고한 신분을 갖춘 미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여성을 꼬집는 말이다. ‘왕자병, 왕비병, 도끼병’ 등 유사한 병에 감염된 수많은 환자들을 만들어 내며 공주병의 열풍은 올해에도 사그라들 줄을 모른다.

- ① 생뚱맞조. ② 짹새 ③ 당근이지.
- ④ 생얼 ⑤ 몸짱, 얼짱

18. 다음 중 비속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나친 사용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치며, 정서적인 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준다.
- ② 대체로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여 ‘시대의 거울’이라고도 한다.
- ③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말로 외부에 알려지면 그 말의 기능을 잃게 된다.
- ④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나 상당히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말이다.
- ⑤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는 말이다.

< 서술형 8 >

다음 <보기>의 말들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6점)

<보 기>

담탱이, 뽀대, 패다.

장점:

단점:

- 뒷면에 계속됩니다.

19. 다음 표에서 옳지 않은 것은.(3점)

	외래어(外來語)	외국어(外國語)
의미	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쓰는 말	다른 나라의 말
예	②빵, 담배, 껌	③댄스, 레스토랑, 헤어
특징	④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⑤ 다른 나라에서 들 어온 말이라는 것을 급방 알 수 있다.
문제점	쉽고 좋은 순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외국문물이 더 우월한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말을 쓰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20. 다음 노랫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Sorry Sorry Sorry Sorry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네게 네게 네게 빠져 빠져 빠져 버려 Baby  
Shawty Shawty Shawty Shaw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막혀 막혀 내가 미쳐 미쳐 Baby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 중에서

(나) 날 설레게 하는 너의 Body 너의 Move  
이미 네 시선을 가뒤편 나뒀던 나의 Groove  
식상함들은 매일 날 지치게 해  
Let's just keep You and I F. R. E. S. H  
-‘빅뱅&2NE1’의 ‘Lollipop’중에서

- ① 대중가요는 전파력이 크므로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② 정체불명의 외국어를 쓰는 것은 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③ 과도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은 우리 언어 문화에 변질을 가져다준다.
- ④ 외래어를 분별없이 마구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 ⑤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쓸데없이 외국말을 쓰는 것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다.

< 서술형 9 >

다음은 친구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이다. <보기>와 같이 옳지 못한 표현을 쓴 부분을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6점)

수진이에게

안녕? 요즘 잘 지내지? 진짜 올만이당!

난 요즘 시험 기간이라 너무 피곤해. 게다가 숙제도 너무 많아서 열라 힘들어. 우리 다음 주에는 놀이동산 가서 즐겁게 놀자. 그럼 너도 수고해. 안녕!

<보기> 안녕? → 안녕?

끝 - 수고 많이 했습니다. ☺